

배경수 협회장, 농업 선진국 이스라엘을 가다!

- 농업연수단과 이스라엘 농업관련기관 및 업체 방문
- 국토의 60%가 사막,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사례 배워
-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선진농업 벤치마킹 필요

배경수 한국양봉협회장이 포함된 이스라엘 농업 연수단(이하 연수단)은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이스라엘 농업관련 기관과 업체를 방문, 선진 농업을 체험하였다.

정부의 농어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선진지 견학은 각 농축산업단체장들과 농림부 담당자들이 선진 농업을 체험코자 마련됐다.



농업인단체 10명을 비롯해 농업인, 선진화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으로 6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이스라엘의 농촌개발부와 농업연구청, 관련 업체 및 채소 시험재배단지 등을 방문하여 이스라엘을 농업여건 및 생산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수단은 효율적이고 현장중심적인 R&D시스템과 농정조직체계, 자본기술의 집약적 정밀농업 및 최첨단 관개시스템 등이 이스라엘 농업의 강점이라 손꼽고, 이를 한국농업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배경수 협회장은 “이스라엘은 국토의 60%가 사막이라는 불리한 환경을 극복한 성공적인 나라의 한 예라 할 수 있다”며 “우리 양봉업계도 현재는

이상기후로 벌꿀 생산량이 줄고, 다양한 밀원수 개발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양봉국가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위기극복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이스라엘 농업은 전적으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 이러한 연구개발이 철저하게 현장중심으로 이뤄지고 정부와 생산자,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우리나라 양봉 또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21세기형 농업에 한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선진화 농업을 강조하였다. **양봉**

이스라엘의 농업은

● 농업현황

- ◎국토면적 및 총인구(2008)
 - 국토면적 : 22만km²
 - 인구 : 731만명
(유대인 80%, 무슬림 17%, 기타 3%)
- ◎농경지 및 농업인구(2008)
 - 농경지 : 440천ha
(관개면적 182천ha)
 - 농업종사자 : 69천명
(전체 노동인구의 2.3%)
- ◎농업생산 규모(2007)
 - 농업생산액 : 55억\$
(국가전체 GDP의 1.7%)
 - 농산물 수출액 : 2,172백만\$
(전체 : 수출액의 4.7%)
 - 농가소득 : 5,440\$/월

● 농업여건 및 생산구조

- ◎농업여건
 - 국토의 60%가 사막, 나머지도 반건조지역으로농지와 물이 절대 부족(단점)
 - 다양한 기후, 지형, 토양조건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장점)
 - 기후 : 아열대-온대성 기후
 - 해발 : 400부터 + 1,000높이 모래언덕에서 층적토까지 다양
- ◎농업 생산구조
 - 이스라엘농업은 20세기초에 시작된 협동체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협력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토지의 국유화 : 국토의 93%가 국유